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홍연란¹ · 장군자² · 최청숙³

¹순천대학교 간호학과 · ²대구대학교 간호학과 · ³경동대학교 시간강사

접수 2015년 12월 18일, 수정 2016년 1월 7일, 게재확정 2016년 1월 14일

요약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 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1, 2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교 5, 6학년 과 중학생 자녀 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가 필요함을 밝히는 바이다.

주요용어: 삶의 만족, 우울, 자아존중감.

1. 서론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2012년 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9만 명이고, 수급자 비율은 중년기 40~64세가 36.4%, 이들의 자녀인 12~19세 아동의 비율은 16.3%로 집계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건강, 교육, 복지증진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건강한 신체, 정신, 사회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성장기 이후의 심리적 장애, 신체적 건강, 수명, 대인관계문제, 직업의 실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들에게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Huebner 등, 2004). 특히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행복이나 안녕감, 만족감에 초점을 두고, 더 향상된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긍정심리학이 등장하면서 (Arthaud-Day 등, 2005) 아동들의 삶에 대한 만족, 행복,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삶의 만족은 한 개인이 자신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자신의 기능 등에 만족하는 정도로 주관적 안녕감, 행복 등의 용어로 연구되어 왔다 (Han, 2006). 그 결과 아동의 삶의

¹ (57922)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석현동),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 교신저자 : (705-714)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mail : kjjang14@daegu.ac.kr

³ (24764)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4길 46,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빈곤, 우울 (Kim, 2011; Kim과 Park, 2004; Yoo와 Kim, 2012; Chi와 Cho, 2012; Bokhorst 등, 2010; Pavot과 Diener, 1993)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경제적 빈곤은 전반적인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여 삶의 만족 혹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나 저소득층 아동들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경제적 수준은 아동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Nam (2006)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 자신들의 삶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빈곤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빈곤은 아동의 삶의 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빈곤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개인적 발달,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에서의 비행 등에 있어서 모두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인지발달이 더디고 정서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정환경면에서는 주거의 열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학교 생활면에서는 성적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아 상급학교 진학이나 향후 직업선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Kim, 2003).

그러나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인 부분의 부정적인 메카니즘만으로 아동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모두 설명하기는 곤란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해나가고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아동들이 존재한다 (Huh, 2005). 삶에 대한 평가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 의하여 다르게 경험되어 진다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속한 가정환경 안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많은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며 (Kim 등, 2011), 자신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고 (Garber와 Hilsman, 1992),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아동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문제와 낮은 학업수행을 보이며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서투르고, 관계형성을 회피함으로써 고립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DeMan, 1999). 또한 아동기의 발달에서 중심적 과제가 되는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판단으로서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바람직한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Nam과 Cho, 2010).

특히 저소득층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Kim과 Cicchetti, 2009). 사춘기는 우울증상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초기시기로 13세 이하 아동의 우울 발생률은 2.8%인 반면 13~18세 사춘기 청소년은 5.6%까지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우울을 조기에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JaneCostello 등, 2006). Abela 등 (2006)은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증상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격특성의 소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울한 아동들은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낮은 성공기대를 가져 결국 학업 성취의 정도가 낮아진다 (Zeidner과 Schleyer, 1998). 이러한 결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들의 학교생활만족도의 저하는 삶의 만족정도의 저하와 직결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추론해본다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자아존중감이 우울정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우울에 대한 중재변인 혹은 보호인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우울 중 어느 변인이 선행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두 변인이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동의 이탈행동이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때 삶의 만족도 연구 대상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울을 매개변수로 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Figure 2.1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성별과 성적수준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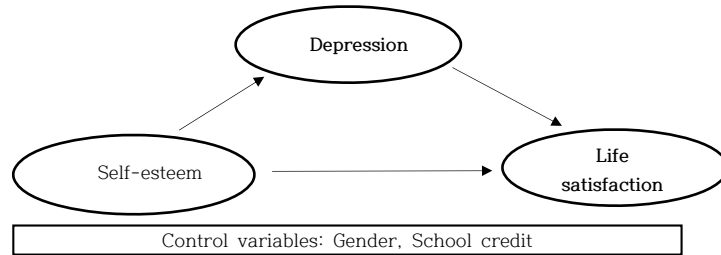


Figure 2.1 Hypothesized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 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1, 2급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6명의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의 취지와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한 뒤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385부이고 설문지 본문 작성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2.3. 연구도구

•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Jon (1974)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서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거의 그렇다’ 4점으로 평점하였다. 5개의 역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인 크론바 알파 (Cronbach’s α)는 .79이었다.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Pavot과 Diener (1993)가 개발하고 Hong 등 (2000)이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도구로 7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인 크론바 α 는 .79~.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인 크론바 α 는 .85이었다.

• 우울

청소년 우울은 Kovacs와 Beck (1977)의 아동용 우울 척도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Cho 와 Lee (1990)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용 우울척도는 7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각 문항이 3점 척도로 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점치를 합산한 총점이 우울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인 크론바 α 는 .88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왜도와 첨도를 통한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여러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추출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이용하므로 변수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통제할 수 있으며, 모형에서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 모형이 실제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잠재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탐색적 요인분석 절차인 측정모형분석과, 잠재변수들간 이론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구조모형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검증한 후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의 독립변수와 삶의 만족도의 종속변수간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1과 같다. 남학생이 196명 (50.9%), 여학생 189명 (49.1%)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98명 (25.5%)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학년 84명 (21.8%), 중학교 2학년 82명 (21.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50.1%로 가장 많았고, 한 달 용돈은 2만원 이상 47.8%, 1만원 미만 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보통’ 61.5%, ‘나쁨’ 27.3%, ‘ 좋음’ 11.2%의 순으로 나타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50.9%로 가장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형태는 편부 혹은 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고, 양친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43.6%였다.

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85)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96 (50.9)	
	Female	189 (49.1)	
School year	5th grade of elementary	98 (25.5)	
	6th grade of elementary	84 (21.8)	
	1st year of middle school	57 (14.8)	
	2nd year of middle school	82 (21.3)	
	3rd year of middle school	64 (16.6)	
Religion	None	193 (50.1)	
	Protestant	123 (31.9)	
	Catholicism	15 (3.9)	
	Buddhism	38 (9.9)	
Others	Others	16 (4.2)	
	Monthly allowance (won)	<10,000	125 (32.5)
		10,000 ≤ <20,000	76 (19.7)
20,000 ≤		184 (47.8)	
School credit	Good	43 (11.2)	
	Fair	237 (61.5)	
	Poor	105 (27.3)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action	196 (50.9)	
	Average	156 (40.5)	
	Dissatisfaction	33 (8.6)	
Coresidence with the parents	Both parents	168 (43.6)	
	Single parent	215 (55.9)	
	Relatives	2 (0.5)	

3.2.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우울 정도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정의 및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Table 3.2와 같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총 5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1~7점 범위에서 평균 4점대에 머물러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각 문항당 1~4점 범위의 점수를 가지며 요인분석결과 공통성이 0.4 이하인 8번 문항을 삭제하고 1, 2, 4, 6, 7번 문항을 자아존중감1로 3, 5, 9, 10번 문항을 자아존중감2로 분류하였으며, 자아존중감1의 평균은 3.43점, 자아존중감2의 평균은 1.61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우울은 각 문항당 0~2점 범위이며 요인분석결과 공통성 0.4이하인 문항들을 제외하고 12, 21, 22, 25번 문항을 우울1로 2, 17번 문항을 우울2로 분류하여 우울1의 평균은 1.20점, 우울2의 평균은 0.95점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수들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왜도 (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절댓값 2이하의 값을 보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조건인 정규분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Table 3.2 Mean scores for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No. of Items	M±SD	Skewness	Kurtosis
Self-esteem	self-esteem1	5	3.43±0.87	.23	-.649
	self-esteem2	4	1.61±0.52	.71	-.190
Depression	depression1	4	1.20±1.48	1.35	1.910
	depression2	2	0.95±0.98	.930	.306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1	1	4.22±1.53	-.03	-.251
	Life Satisfaction2	1	4.58±1.48	-.05	-.596
	Life Satisfaction3	1	4.97±1.57	-.40	-.534
	Life Satisfaction4	1	4.73±1.56	-.18	-.712
	Life Satisfaction5	1	4.50±1.78	-.27	-.788

3.3.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우울 및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만족도, 성별, 학교 성적간 상관관계는 Table 3.3과 같다.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우울, 삶의 만족도, 성별, 성적과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은 삶의 만족도, 학교 성적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삶의 만족도는 학교 성적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3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N=385)

	Self-esteem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Gender	School credit
Self-esteem	1				
Depression	-.375**	1			
Life Satisfaction	.368**	-.392**	1		
Gender	-.143**	.066	-.064	1	
School credit	-.137**	.125*	-.123*	.037	1

* $p < .05$, ** $p < .01$

3.4.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측정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4와 같다. 각각의 측정변수들은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여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4 Parameter estimate of structural model

Path		Estimate		S.E	C.R.
		B	β		
Self-esteem→	self-esteem1	1.000	.657		
	self-esteem2	.548	.603	.068	8.013***
Depression→	depression1	1.000	.789		
	depression2	.581	.740	.041	14.168***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1	1.000	.749		
	life satisfaction2	1.180	.907	.065	18.216***
	life satisfaction3	1.176	.855	.068	17.176***
	life satisfaction4	1.032	.757	.069	15.017***
	life satisfaction5	.922	.595	.080	11.557***

*** $p < .001$

3.5. 구조모형 분석

3.5.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chi^2=159.422$ ($p < .001$), CFI=.926, TLI=.903, RMSEA=.085, GFI=.901 AGFI=.896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5 Comparison of fitness of statistics for the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GFI	AGFI
Fit Index	159.422	42	<.001	.903	.926	.085	.901	.896

3.5.2. 구조모형 분석

Table 3.6은 모수추정의 결과로 매개효과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및 비표준화 값의 형태로 표시하고 있으며, 모든 잠재변수간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1).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부적영향($\beta=-.629$)을 미치고,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영향($\beta=-.4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영향($\beta=.4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우울이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3.6 Tes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Path		Estimate		S.E	C.R
		B	β		
Life Satisfaction	← self esteem	.239	.475	.053	4.521***
	← depression	-.359	-.400	.077	-4.657***
Depression	← self esteem	-.352	-.629	.051	-6.89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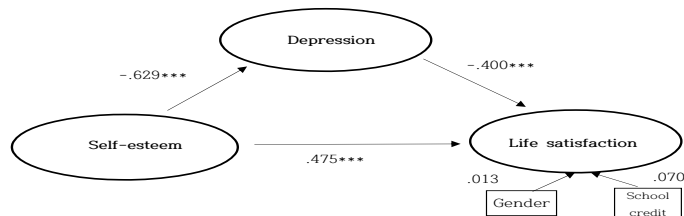


Figure 3.1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3.5.3.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법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우울→삶의 만족도의 경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경로의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546~.741), 유의수준.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7 Mediating effects of the model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I
Self-esteem→Depression→Life satisfaction	.727**	.475**	.252**	.546-.741

** $p < .01$

4.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우울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개 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1, 2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385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첫째,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 가정의 자녀들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신들이 가치 없다고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효율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로인해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삶의 만족정도가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Hong 등 (2000)의 연구에서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자아존중감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개인 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 정도와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Lee와 Park (2011)의 연구, 여학생이 남아에 비해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는 연구 (Kim, 2007)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업성적은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Kim 등 (2006)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층 아동의 정책적인 지원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아동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 경쟁적 구도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Yoo 등, 2010).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한 스트레스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소외계층 아동의 삶의 만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보호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삶의 만족정도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럼 보이지만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보호요인이 저소득층 자녀의 위험요인인 우울에 부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주로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Terwogt 등, 2006)으로 주장되거나 혹은 우울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요인(Civitci, 2010)으로 다루어진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발생의 경향성이 높고 우울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가 자아존중감이라는 연구결과 (Sim, 1998; Harter, 2001)를 전제로 분석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 자녀일수록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가 지속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성취저하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성장 환경요인을 의미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심리적 문제와 적응 및 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사회 문제와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불충분하며 본 연구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유발하는 직접 효과를 가지고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중재의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지 및 적응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태도와 감정에 효과적인 조절능력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불만족과 같은 부적응 문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접근과제가 될 수 있고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울이 아동의 삶의 만족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우울의 부정적 영향이 심리적 측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과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안정과 지원 방안이 근본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소득보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검토가 시도되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지지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기초생활수급자 1, 2급 대상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가구들 중 여러 형태의 극심한 생계곤란을 경험하는 가구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자료는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이나 숨겨진 개인 부채 등으로 인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해야한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 Abela, J. R. Z., Webb, C. A., Wagner, C., Ho, M. and Adams, P. (2006). The role of self-criticism, dependency, and hassles in the course of depressive illness: A multi-wave longitudinal study of vulnerability and resilienc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328-338.

- Arthaud-Day, M. L., Rode, J. C., Mooney, C. H. and Near, J. P. (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construct: A test of its convergent discriminant and factorial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 445-476.
- Bokhorst, C. L., Sumter, S. R. and Westenberg, P. M. (201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friends, classmate, and teach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 aged 9 to 18 years: Who is perceived as most supportive? *Social Development*, **19**, 417-427.
- Chi, M. W. and Cho, T. Y.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ctivity on leisur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6**, 145-165.
- Cho, S. C. and Lee, Y.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 943-956.
- Civitci, A. (2010) Moderator role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15**, 141-152.
- DeMan, A. F. (1999). Correlates of suicide ide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The importance of depress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0**, 105-114.
- Garber, J. and Hilsman, R. (1992). Cognitions, stress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D. P. Cantuwell (ed).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W. B. Saunders, Philadelphia
- Han, S. C. (2006). Adolescent's risk behavior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2**, 99-116.
- Harter, S. (2001).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 division of Guilford Publications, Guilford, New York.
- Hong, Y. L., Yi, G. E. and Park, H. S. (2000). A structural model for health promo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life in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1**, 333-346.
- Huebner, E. S., Suldo, S. M., Smith, L. C. and Mcknight, C. G. (2004).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and youth: Empirical foundations and implications for school psychologis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1**, 81-93.
- Huh, M. S. (2005). The quality of life of childhood poverty, Hakjisa, Seoul.
- JaneCostello, E., Erkanli, A. and Angold, A. (2006). Is there an epidemic of child or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llied disciplines*, **47**, 1263-1271.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 107-129.
- Kim, A. R. (2011).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im, A. S., Oh, Y. J. and Choi, M. G. (2006). The School-Life Satisfaction with Background Factor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15**, 195-207.
- Kim, E. J., Kim, J. K., Lee, N. J. and Lee, M. S. (2011). Self-esteem item goodness-of-fit in sports talent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 487-494
- Kim, H. J.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ositive affects,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J. and Cicchetti, D. (2009). Mean level change and intraindividual variability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high-risk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 202-214.
- Kim, M. S. (2003).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poverty and income support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6**, 35-47.
- Kim, U. C. and Park, Y. S. (2004).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 973-1002.
- Kovacs, M. and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1-25.
- Lee, B. R. and Park, H. J. (2011). Self-repor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school-age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29-15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2012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ciaries statu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1352000-000040-10), 1-213.
- Nam, M. A. (2006). Factors influencing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 265-290.
- Nam, M. J. and Cho, K. H. (2010). A study on the guardian's mental attitudes and self-esteem toward their children with muscular dystroph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1**, 1091-1100
- Pavot, W. and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Sim, H. O. (1998). Depression among late - elementary children : Relationships with daily hassles, self - esteem & social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 133-144.
- Terwogt, M. M., Rieffe, C., Miers, A. C., Jellesma, F. C. and Tolland, A. (2006). Emotions and self-esteem as indicators of somatic complaints in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 581-592.
- Yoo, M. S., Shin, M. and Jeon, S. H.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 131-150.
- Yoo, J. W. and Kim, H. M. (2012).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s life quality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cological variabl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6**, 231-257.
- Zeidner, M. and Schleyer, E. J. (1998).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for academic self-concept, test anxiety and school grades in gifted childre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4**, 305-329.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 Testing mediation model of depression

Yeonran Hong¹ · Gunja Jang² · Cheungsook Choi³

¹Department of Nursing,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Daegu University

³Kyungdong University

Received 18 December 2015, revised 7 January 2016, accepted 14 January 201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The subjects were 385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in two municipalities. As research methods, frequency, descriptive, correlation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20.0 program was conducted. The hypothesized model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that model fits best to the collected data. The analysis indicates that depression had direct and negative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mediates part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creasing self-esteem had positive effects on decreasing depression and pressing for improvement of life satisfaction level of children from low-income class.

Keyword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¹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University, Daegu 705-714, Korea. E-mail: kjjang@daegu.ac.kr

³ Part-time lecture, Kyungdong University, Gosung 24764, Korea